

오피니언

테마칼럼

국가와 사회

금융&비즈니스

국제관계

체육과 건강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갖자



오수상

“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믿고 투자할 것인가? ”

아무리 경제 시스템이 잘 디자인되어 있고 각종 제도적 환경을 갖춘다고 한들 그 안에서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경제주체들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최재영



얼마 전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두통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수년 전부터 두통을 앓아왔으며 여러 병원의 치료를 받았던 경우였다.

적으로 수축시킨다. 이러한 수축이 근육에 분포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두통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정신과 문을 두드리라

성의 95%가 ‘그렇다’고 답했을 정도다. 두통은 단순한 신체적 질환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두통질환 가운데 긴장성 두통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이나 커피 담배를 절제하고, 과일이나 야채, 수분섭취를 늘리고 ▲적당한 운동 ▲휴식 또는 여가활동에 참여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키기 ▲친구나 애인, 가족과의 대화시간 늘리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등이 있다.

인터넷상 병역 기피 사이트 원천 차단해야

며칠 전 광주일보에서 프로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어깨를 내리쳐 탈골시킨 뒤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기사를 봤다.

박치를 알려놓은 게시물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통화는 곤란하다며 문자로 하자는 연락과 함께 대화 가능한 메시지를 알려왔다.

기고

조호권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이름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건널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잠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며 꿈을 예찬했다.

청소년들이여, 세계 무대로 나가자

1980년 초 100포인트를 기록했던 종합 주가지수는 2008년 현재 170배의 성장을 거듭해 1,7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교역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 시장에 접목시킨 결과이며 경제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한 성과이다.

만 부채꼴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두 선의 차이는 꿈을 가진 자와 아닌 자의 차이만큼 넓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채꼴의 바깥 빛면에 놓여 있는 성공인생의 선을 선택해야 한다.

늘어나는 캠퍼스 성범죄 예방대책 서둘러야

캠퍼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경찰의 학원사찰의 거부반응 여파로 경찰이 캠퍼스를 떠나면서 치안부재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절도·성폭행 등 캠퍼스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안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범죄자들은 ‘대학에는 경찰이 없고 인적도 드물어 성폭행 장소로 택했다’고 말할 정도로 치안 사각지대다. 그래서 미국처럼 대학내 캠퍼스 폴리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시설

각료 인사마저 광주·전남 배제할 건가

14일 윤곽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면면을 보면 새 정부가 노골적으로 호남을 배제하려는 인상이 짙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원안대로 14개 부처 장관을 사실상 내정함으로써 알려졌다.

역시 영남출신 일색이다.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여기에다 국경위원장에 거론되는 김성호 전 법무장관마저 영남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한 지역편중 인사를 한 역대 정부는 없었다.

광주시 지하철 개통 연기 재검토하라

선거법에 묶여 광주지하철 1호선 2구간의 개통이 보름 이상 연기된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하철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을 3월27일개 개통키로 했으나 선거법상 개통식 개최가 불합법이라는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하철 1호선의 조기 완전 개통은 광주시민의 숙원이다. 현재 울산역에서 상무역까지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반쪽 운행에 그치고 있다. 2구간이 개통되면 총 연장 20.1km에 19개 역으로 구성된 지하철 1호선은 광주시민의 소중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평양 한 북관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남북축구에서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칠 수 있을 것인가? 14일까지의 상황으로는 일단 어려워 보인다.

북은 분단 이후 지난 1990년 ‘통일축구대회’를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만났다. 통일축구대회는 지난 1929년부터 남북이 갈라지기 전까지 경성(京城) 축구단과 평양(平壤) 축구단이 서로 방문해 가졌던 ‘경평 축구대회’를 복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붉은악마’와 평양



붉은 악마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6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의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차전 응원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로 벌어졌다. 지금의 북한은 체제 중심부에서 태극기가 나눠지도록 하는 게 약간 난감한 일이 아닐 것이다. 붉은 악마들이 평양에서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날, 비로소 진정한 ‘통일축구’ 경기 개최일로 기록될 듯하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회장 許容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